

전남도 '26년 전통' 남녀 체조팀 해체키로

지역 학교와 연계육성 안돼 협의 없어 선수·코치 반발 카누팀·여자 근대5종 신설

전남도가 지난 1979년 창단한 남녀 체조팀을 해체하기로 했다. 지역 초·중·고와 연계한 선수 육성이 안 되면서 타 지역 출신을 채용할 수밖에 없고, 최근 이렇다할 성적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체조팀 소속 선수와 코치 10명은 26년 역사를 지닌 팀을 해체하면서 사

전협의도 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남도는 7일 "남여 체조팀을 올 연말까지 해체하고 대신 카누팀과 근대5종 여자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수립한 전남체육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지역 내 초·중·고 선수가 거의 없는 체조팀을 해체하기로 했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지난 1979년 펜싱팀과 함께 창단한 체조팀은 남자 선수 5명 코치 1명, 여자 선수 4명 코치 1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남도는 체조팀을 해체하는 대신 전남체

고, 목포대 등 고교와 대학 선수가 있는 카누팀, 근대5종 여자팀을 창단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도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팀인만큼 지역 출신 선수에게 일 자리를 주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미 선수와 코치에게는 통보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체조팀(남여), 펜싱팀(여), 정구(여), 근대5종(남) 등 5개 팀을 운영하면서 올해 23억4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체조팀 소속 선수와 코치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역 초·중·고의 학생 체조선수를 육성해야 할 처지에 팀을 해체했다는

것이다. 또 성적 부진은 체조팀 선수가 적어 단체전에 나가지 못한 탓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정미선(여·39) 코치는 "20년 전 선수로 시작해 코치까지 맡아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제 막 20대 초반인 선수들에게 갑자기 팀 해체를 통보하면서 길거리로 나왔게 됐다"고 토로했다. 올해 체조팀 예산은 약 3억원 수준으로, 올해 전국체전에서는 동메달 1개를 수확했으며, 선수 7명이 참가하는 단체전에는 나가지 못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내년 국비증가율 5.0% ... 광역지자체 중 6위

광주는 4.5%로 8위

인원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과 세종을 제외하고 내년도 국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은 6위, 광주는 8위를 기록했다.

7일 전남도가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의 내년도 국비 확보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인원은 올해보다 17.6%(3667억원) 많은 2조 4520억원을 확보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내년 국비예산 증가율이 높은 곳은 충남 9.6%(증가액 4143억원·내년도 확보액 4조7409억원), 울산 7.7%(1656억원·2조3103억원), 경북 7.5%(8437억원·12조1000억원), 대전 6.8%(1609억원·2조5309억원) 등의 순이었다.

2~5위를 차지한 이들에 이어 전남은 5.0%(2637억원·5조5884억원)의 증가

율을 기록해 6위를 보였고, 충북이 4.8%(2087억원·4조5897억원)로 7위를 차지했다. 광주는 4.5%(747억원·1조7332억원)로 8위를 달렸다.

경기 4.0%(4234억원·11조625억원), 강원 3.8%(2313억원·6조3028억원), 제주 3.5%(430억원·1조2671억원), 대구 3.7%(1185억원·3조3432억원), 부산 3.3%(1077억원·3조3605억원), 경남 2.7%(1763억원·6조6000억원), 전북 0.7%(418억원·6조56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인원은 원래 인구 대비 예산이 적어 증가추세에 있고, 경북의 경우 계속 사업비가 들어가는 철도 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사업이 많아 예산이 증가한 것"이라며 "전남도는 열악한 예산 확보 환경에서도 중상위권 성적을 거뒀다"고 자평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여대 반쪽 주차장 제대로 건립될 듯 시의회, 사업비 16억 의결

이른바 '반쪽 주차장'으로 불린 광주여대 체육관 부설 주차장 증축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규정을 어긴 광주시에 대한 시의회의 패널티를 비켜가지는 못했다.

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내년 본예산 심의에서 제출된 21억6200만 가운데 5억6200만원을 삭감하고 16억원을 의결했다.

이 사업비는 광주여대 체육관 주차장 건축비로 60억원 중 지난해 5월, 시와 학교 측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던 돈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의회 승인을 받지 않는데다 학교 측과도 협약서 하나 없이 달력 공사를 추진하면서 말썽이 일었다. 시의회는 지난해 6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 학교 측 돈으로만 공사가 진행된 채 공정을 50% 상황에서 중단됐었다.

예산안이 시의회를 최종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체육관 이용객이 2층 규모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파리 테러 현장 찾은 반기문 총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이 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라본 비에르' 카페 앞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테러범의 총기 난사로 5명이 숨진 '라본 비에르' 카페는 테러가 발생한 곳 중 처음으로 지난 4일 다시 문을 열었다.

연립뉴스

광주시-시의회, 도시철도 2호선 공방 치열

시의회 "계획없는 사업 추가 사업비 부풀려"

시 "최소한의 사업비만 반영했을 뿐"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 변경을 결정한 광주시와 원안인 저심도를 고수하는 광주시의회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7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는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최근 원안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원안(지하) 중심형 ▲지하+노면 조합형 ▲노면전차(트램)형 ▲모노레일 중심형 ▲원안 고

수형 등 5개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광주시가 원안 추진을 피하기 위해 저심도 방식을 제안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기연)의 사업비 절감방안을 누락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시가 총사업비를 부풀렸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내년 본 예산을 심의중인 광주시의회는 연일 광주시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의회 김민중 산업건설위원장 등 일부 의원들은 국책연구기관의 검토결과 사업비를 더 절감할 수 있는데도 광주시가 구미에 맞게 일부만 사업비 절감을 반영해 결국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원안 추진을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VE(경제성검토)과정에서 승인받은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조정하고 절감방안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에 반영도 되지 않은 사업들을 추가해 총사업비를 부풀렸다"며 "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기연)의 검토보고는 기본설계에서 192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

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푸른길공영 웨스 관련 민원, 전문가 TF팀 제안 등 총 8000억원 상당의 사업비가 초과되었는데 이중 기본설계 단계에서 최소한의 사업비 증액 필요액은 4300억원이다"면서 "하지만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을 위한 제안임을 감안해 모두 다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필수적인 사업비 1240억원은 지금 반영하지 못하면 안된다는 판단이다. 이는 앞으로 실시설계나 공사중에 반영될 사업비이다"고 주장했다.

시는 또 저심도의 불확실성 주요 사유로 신공법에 대한 미검증, 법적 시설기준 위배, 사업비 증가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지방정가

"광주교육청 미집행 예산 최대 수백억 달해"

이은방 광주시의원 밝혀

광주시교육청의 예산정책 실패로 미집행 예산이 최대 수백 억원에 달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은방(북구 6) 광주시의회 의원은 7일 열린 정례회 결산심사에서 "시교육청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산술적인 문제로 최소 수십 억원에서 최대 수백 억원에 달하는 불용액을 발생시켰다"며 "내년도 본예산 중 정규직 인건비를 보면 가장 최소액인 성과상여금 기준 최소 18억5000만원이 초과 편성됐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1년 296억원 ▲2012년 94억원 ▲2013년 49억원 ▲지난해 50억원 ▲올해 50억원(추정) 등



이다. 이는 성과상여금과 봉급 및 시간의 수당, 맞춤형복지비 등 예산을 각 부서별로 달리 편성하는데, 각 부서별로 유기적인 협조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은방 의원은 "예산의 과도한 편성에 따른 불용액과 집행할 예산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하는 능력 부족이 예산 결산 심사에서 그대로 드러났다"며 "시교육청은 예산의 전문성과 정책적 생산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종희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교육청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원사업 증폭"

유정심 광주시의원 지적

광주시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초·중·고교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위한 각종 사업이 증폭지원 등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정심(남구 2) 광주시의회 의원이 7일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내년도 본예산 심의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기초학력 책임지도 지원사업비로 모두 108억9975만원을 편성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22억7800만원 ▲2013년 36억5575억원 ▲지자체



32억4800만원 ▲올해 17억1800만원 등이다.

유 의원은 "시교육청은 지난 4년간 기초학력 등 제고를 위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해마다 사업비와 편성내역이 다르다"면서 "하지만 시교육청은 유사사업 또는 중복사업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 기초학력 미달등급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종희기자 golee@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의원

스마일 라식

라식과 라섹을 뛰어넘는 안정성과 정확성이 높은 미래형 차세대 시력교정술

- 신경손상이 적어 안구건조증 감소
- 뛰어난 회복속도 빠른 일상생활 가능
- 각막을 열지 않아 외부충격에 더 안전
- 만족스러운 결과, 1.0 이상 90% 시력유지
- 우수한 시력 예측, 시력예측도 가장 우수
- 더욱 뚜렷하고 선명한 시력교정!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로내원 스마일/라식/라섹/ICL/백내장/녹내장/망막/눈성형/노안

밝은광주안과

의료광고심의의뢰 제150204-증-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